물질주의시대 인문학의 의미

박찬국
호서대 교수 · 철학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철학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철학이 없는 시대란 없다. 하이데거와 같은 사상가가 말하듯이 어느 시대이고 항상 특정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철학이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유교적 이해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 삶의 모든 국면을 지배했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를 양화가능한 것으로 보는 물질주의 철학과 인간 삶의 목표를 물질적 쾌락으로 보는 쾌락주의 철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세계 전체에 열려 있기에 이러한 광막한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와 아울러 인간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이해, 즉 철학을 정립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세계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하나의 세계이해, 즉 철학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이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한 시대의 성격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철학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가 얼핏 보기에 풍요로운 시대 같으면서도 궁핍한 시대이고 자유로운 시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부자유한 시대인 것 같을 경우, 이는 그 철학이 풍요를 보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궁핍을 야기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자유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현대를 규정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철학이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시대이다. 인간은 자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원으로 보면서 자신을 주체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개개인 역시 자연의 에너지를 최대한 발굴해내도록 사회적인 기능 연관체계에 의해서 닥달당하는 '에너지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고 한갓 계산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에너지 집합체로 전락한 니힐리즘의 시대이다. 이 시대란 풍요가 지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무게가 상실되고 니힐(nihil), 즉 공허와 궁핍이 지배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의 본질적인 궁핍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문명의 계속적인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이해와 인간이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철학의 정립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인문학이 갖는 지대한 의미가 있다. 이는 이러한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전공학문으로서의 철학뿐 아니라 문학과 역사 그리고 예술을 포함하는 인문학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에서는 항상 인간의 자기이해와 세계이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철학이 자신의 곤궁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그것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면서, 정부를 비롯,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마저도 그 철학에 굴복하고 있다는 데 우리 시대의 모순이 있다. 이 시대만큼 인문학이 절박하게 요청되는 시대도 없건만, 대학에서마저도 인문학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 대학은 흡사 영어학원과 컴퓨터학원 내지 취직을 위한 전문기술학원으로 변하고 있다. 그나마 대학은 사회의 비판세력으로서 낭만이 남아 있었으나, 이제 사회 속으로 급속히 편입되어가면서 대학에도 삭막한 바람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철학과 인문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

출판저널
1997년 9월 20일 제221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논단 2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 한기호
"재고도서 할인판매는 우리 모두를 결딴낸다"에 대한 반론
기획취재 4 출판인 재교육 프로그램 활발하다
출판캠프 5 정보와 고민 함께 나누는 출판인의 자리
출판화제 6 책으로 풀어보는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8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9 건축의 아름다움과 공간의 미학
10 복잡한 세상, 인간의 마음 제대로 알기
신간 확대경 12 조용진 지음 《서양화 읽는 법》
특집/책과 예술 14 세상을 담은 그림 안의 '책' – 이 섭
16 사진 속으로 빨아들이는 강렬한 소품 – 이영준
18 흐르는 이미지 속의 또다른 세상 – 정성일
주제가 있는 책읽기 20 우리시대 '문화'의 큰 줄기 탐구
출판사마다 '문화론' 시리즈 앞다퉈 발간
해외 서점 탐방 22 지성과 낭만, 헌책과 새책의 만남 – 최연구
파리 대학가의 노란 책방 '지베르 죈'
베스트셀러 다시읽기 7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읽고 – 이나미
화제의 출간 11 《한국 호 대사전》 – 남권희
책갈피 산책 23 김중태 지음 《원효결서》 – 한필훈
서평 24 안동대국학부 편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 하현강
박 섭 《한국 근대의 농업변동기》 – 이호철
25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 김영용
26 조인래 편 《쿤의 주제들》 – 신중섭
권태환, 조형제 편 《정보사회의 이해》 – 홍성태
27 허 정 《아시아 전통의학을 찾아서》 – 신순식
28 김형균 《군수산업의 사회학》 – 지만원
중국현대문학학회 편 《중국 현대문학의 세계》 – 이욱연
책이 있는 풍경을 찾아서 29 예술영화전용관 자료실
이 책 그 사람 30 《세상의 그리운 것들》 펴낸 강대철씨
《세도나 가는 길》 펴낸 장석주씨
31 《게임 오버 수로 바이러스》 펴낸 김 설씨
《와인, 알고 마시면 두배로 즐겁다》 펴낸 김준철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⑰

표지/렘브란트 〈어머니의 초상〉(1631)
관련기사 14쪽